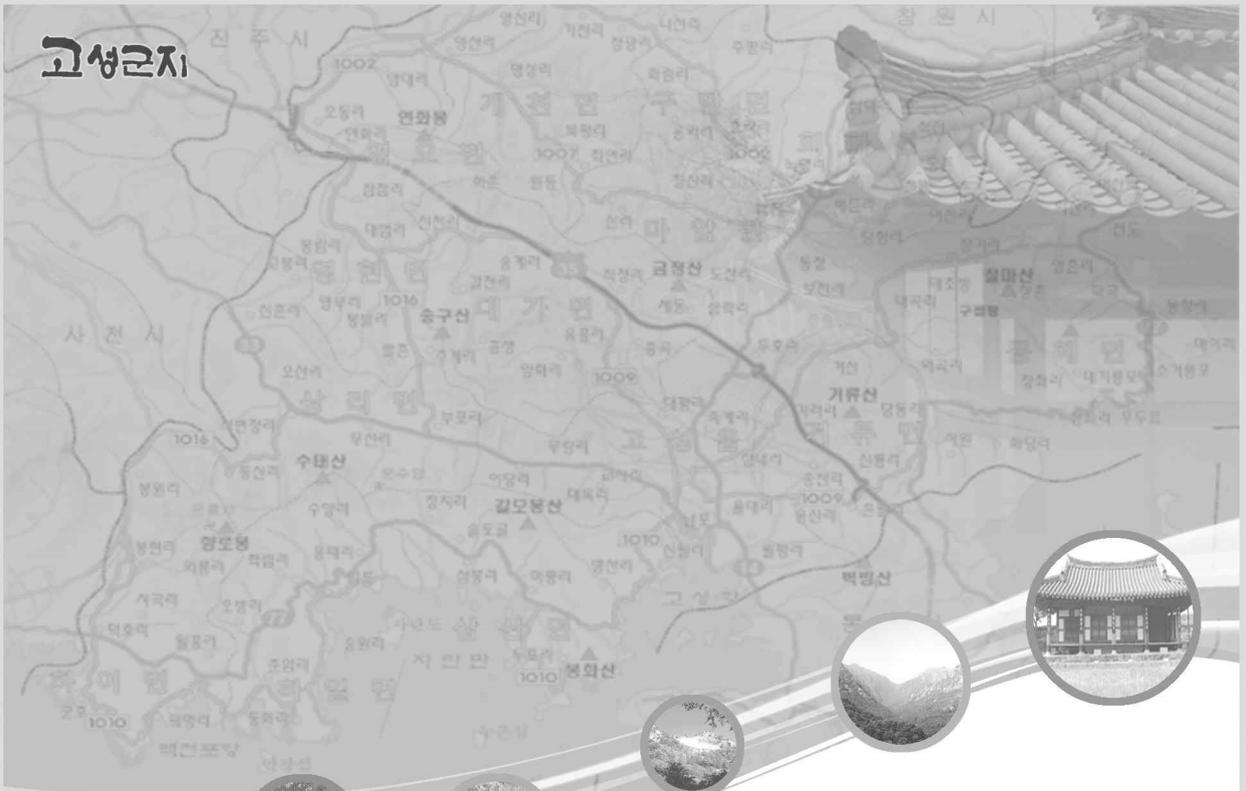


고성군지



제 1편 **터전과 내력**

고성 | 연혁



일러두기

- 1) 각 편별과 장별로 전문집필위원을 위촉하여 집필하였다.
- 2) 편찬형식은 전체를 3권으로 하여 1질로 하였고 편제는 편별로 구분하여 제1편부터 제15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권별 목차를 수록해 찾기 쉽도록 했다. 전체 부분에서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은 가급적 언급을 삼갔다. 고성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 3) 군지의 1차적인 자료는 1995년 발간된 「고성군지」를 기초로 하되 오류나 불합리한 부분은 문헌이나 사료를 통해 삭제·수정을 했다. 기존의 군지에 없었던 부분은 대폭 보완을 했다.
- 4) 인물편은 시대별로 구분했으며 ‘조선시대’ 이전 인물은 ‘고성사료집’에서 발췌를 했고 근현대인물은 사회통념상 ‘명사’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수록을 했다. 다만,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집필자가 다 살필 수가 없어 수록되지 못한 인물도 더러 있을 것이다.
- 5) 화보는 일제강점기부터 근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수록하여 고성의 어제와 오늘을 대비(對比)했다. 그러나 자료의 확보가 지난했다. 화보의 사진은 사진작가 류태수와 이상근, 고성군청 채수천 제씨가 제공을 했다. 본문의 ‘사진’은 부득이 흑백으로 처리했다.

제 1편 터전과 내력

제 1장 고성

고성은 어떤 도시인가.

고성이란 지명은 그 시원始原이 깊다. 일찍이 중국의 삼국지와 후한서에 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東國)으로 기록한 것에서 보듯 아주 오래되었다. 그것은 고성의 최초 명칭이었을 것이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고성을 고사포古史浦로 기술해 놓았다. 또 고성군은 본래 고자군古自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고성으로 이름을 고쳐 지금도 그대로 부르고 있다고 했다. 지금이란 고려시대를 말함이다.

일연 승려가 쓴 《삼국유사》에서는 고성을 가야의 일원인 소가야小伽倻이라고 했고 고자국古自國이라고도 했다.

고성은 북쪽과 서쪽으로 대체로 높은 산들로 막혀 있고 동남으로는 남해 바다와 연해 있다. 산에 살다가 산이 시들해지면 언제든 산의 답답함을 풀고자 바다로 나가서 푸르디푸른 코발트블루의 물빛이 주는 아득한 것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그리움에 젖을 수 있다. 바닷가에 살다가 바다가 싫증이 날 때는 언제든 백방산, 거류산, 구절산, 무량산, 금태산, 연화산, 무이산, 수태산, 향로봉 등지로 올라가서 발아래 먼지 묻은 세상을 향해 포효하고 마음에 켜켜이 쌓인 욕망의 때를 말끔히 씻어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 산은 바다를 그리워하고 바다는 높은 산정의 흰구름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산과 바다가 함께 공존하고 있으니 어찌 넓은 들이 없겠는가. 산과 산이 만나 뺨어 내린 골짜기 곱탁곱탁 흡은 살찌고 찰져서 크고 작은 농경지가 펼쳐진 곳에 오곡백과가 영근다. 고성읍에 비교적 넓디넓은 고성평야가 있다. 흔히 고성사람들은 이곳을 ‘바닥 들판’이라고 불렀다. 토질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물 빠짐도 좋고 관개도 수월하여 매년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밥맛이 좋아 옛부터 인근의 거제와 통영에서 쌀을 사고자 장날이면 즐겨 찾아왔다.

고성 앞바다는 난류와 해류가 만나는 지점이다. 어종도 다양하지만 맛 또한 천하 일미다. 횡감으로 싱싱한 생선은 육질이 고소하고 쫄깃쫄깃하여 고성 삼천포에서 잡히는 고기를 제일로 쳤다. 통영과 거제의 고기를 다음으로 쳤고 부산에서 잡히는 고기를 그 다음으로 쳐주었다.

고성의 기후는 사람 살기에 좋고 농사짓기에도 알맞았다. 봄 여름 가을에는 그 계절에 필요한 햇볕과 바람과 비를 내려주었다. 겨울이면 다른 지역에 눈이 평평 쏟아져도 이곳에는 포근하고 따스해 눈 대신 비가 내린다.

고성인固城人의 성정性情도 이 날씨를 닮아서인지 좋으면 간肝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인정 많고 솔직 검박했다. 농경사회였기에 대체로 보수적이고 관료 지향적이었다. 보수적이란 오랜 세월 동안 가꾸어 온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으로 이것은 아름다운 덕목이었다. 유교문화가 성행하여 반상을 가리고 양반 상놈을 운운한 것도 이에서 연유했을 터이다. 웬만한 고을에는 서원이 있어 일찍 학문을 갈고 닦아 관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많았다. 출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농경사회에서 관료사회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것을 최상의 길이라 여겼다. 문학이니 미술이니 음악이니 하는 예술의 토양은 숨을 쉴 공간이 없어 점점 박토가 된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인근의 외지인들은 곧잘 고성사람이 앉은 곳에는 풀이 나지 않는다고들 했다. 영악하고 모질다는 뜻일 것이나 다방면에서 특출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던 고성인들이 다소 세련되지 못해 드세고 거칠어 남에게 꺾이지 않으려는 불굴의 강인한 기질로 인해 고성사람이 앉은 자리에 풀도 나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다. 앉은 자리의 풀을 태울 정도의 뜨거운 열정과 창조적인 사고로 매사에 뛰어난 고성인에 대한 부러움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읍에는 조선시대 세종 때 빈번한 왜구의 침범에 대비해 축조한 읍성이 있었다 . 지금은 일부 구간에서만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 읍성의 남쪽 성벽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쌓은 왜성인 고성성固城城이 상당 부분 아직까지 남아 있다.

왜구들의 잦은 침범으로 전시를 대비하여 미륵산 봉수와 우산牛山(통영 도산면)봉수, 좌이산 봉수, 천왕점 봉수, 곡산(구절산) 봉수가 있었다. 시랑도와 두포리 사이에도 봉수를 운영했다.

읍성 안에는 4개의 우물이 있었다. 은성정隱城井, 창거리정倉巨里井, 옥천정玉泉井, 어시정魚市井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창거리의 샘은 겨울에도 물론 여름 갈수 때에도 잘 마르지 않았고 물맛도 좋았다. 2개의 못 [池] 도 있었다. 하나는 객사마당에 있었고 하나는 군청 뒷마당 그 언저리에 있었다.

고성 군청의 자리는 동헌이 있었던 곳이다. 신라시대부터 동원이 그 자리였으니 고성군청은 고성역사의 정통성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셈이다. 동헌이란 고을 원이 집무하고 기거하는 곳으로 청심헌淸心軒을 비롯한 은선각隱仙閣과 아사衙舍가 있었다. 청심헌淸心軒의 청심淸心이란 고을 수령이 청렴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공평무사하게 집무를 보라는 뜻이었다.

동헌은 정남으로 향해 있었다. 청심헌을 중심으로 작청作廳(질청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방吏房과 아전衙前들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던 청사), 향사당鄉射堂(유향소의 좌수, 별감 등의 향임들의 집무소. 유향소는 수령의 지방행정을 보좌하고 향리와 주민들을 통제하는 곳)은 동헌의 서쪽에, 양무당養武堂(군관청)은 동헌의 북쪽에, 청해당은 동쪽에, 비장청裨將廳(지방관을 따라 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 벼슬인 비장들이 대기하거나 사무를 보던 곳)은 동헌의

남쪽에 배치돼 있었다.

동헌의 북동쪽으로는 객사客舍인 청해당淸海堂이 있었다. 객사는 궐패闕牌를 모시어 두고 임금의 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벼슬아치나 일반관리들을 대접하고 묵게 한 곳이다. 객사의 기둥이 얼마나 굵었으면 크고 굵은 것을 비유할 때 이곳 사람들은 흔히 ‘객사 기둥만 하다.’ 는 표현을 곧잘 썼다. 통영의 세병관이나 여수의 진남루도 다 객사였다. 고성 객사는 1900년에 불이 나 소실되었으나 그 후 일제강점기가 겹쳐 객사 건물은 복원되지 않았다. 객사가 있었던 넓은 빈터를 객사마당이라 불렀다.

객사마당은 고성의 또 다른 문화공간이었다. 풍물패나 서커스단이 공연을 벌였고 밤이면 가설극장의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군중들의 집합장소나 정치인들의 각종 선거 유세도 그 곳에서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풍성한 놀이공간이었다. 겨울이면 연을 날리거나 눈싸움을 했다. 사내아이들은 자치기, 제기차기, 구슬치기, 전쟁놀이, 때기치기, 못치기, 팽이치기, 기둥말타기, 땅따먹기, 방쳐내기, 줄넘기, 진따기, 공놀이 등을 하면서 놀았고 소년들은 고무줄넘기, 콩돌줍기 등을 하면서 그들의 유년을 살찌웠을 것이다. 정월대보름이면 달집을 만들어 태우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었던 공간이기도 했다.

1일과 6일에 서는 고성장날의 장터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다. 객사 마당을 중심으로 아침 일찍부터 싸전을 비롯한 어물전과 건어물전·채소전·옹기전·그릇전·유기전·갓전·우시장·닭전·일용잡화를 파는 각종 난전, 이 난전에는 남녀 옷을 파는 옷장수와 기름장수, 소금장수와 더불어 면빚이나 참빚, 열레빚이 보였고 신발이나 모자, 담뱃대나 인두, 가위, 손거울, 가용에 필요한 각종 철물들이 진열돼 있었다. 객사 마당 한켠에는 바소쿠리나 지게에 지고 온 바구니 장수와 나무장수, 솟장수가 종일 손님을 기다렸다. 대장간에서는 농번기에 쓸 농기구를 손질하는 풀무질이 한창이고 오래 사용하여 깨어지고 구멍이 난 솔이나 양동이를 땀질하는 땀쟁이의 손길도 분주했다.

객사 마당 뒤 술도가에서는 막걸리를 걸러서 연방 주문 받은 술집이나 음식점으로 실어 날랐다. 떡 방앗간에서는 시루떡이나 백설기, 떡국가리를 뽑아내느라 분주했다. 국밥집에서 풍겨 나오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음식점 안에 자리 잡은 장날 손님들은 소주잔을 앞에 놓고 내지르는 왈카한 소리가 낭자했다. 사람들 틈 사이로 오고가면서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뚜드리는 옛장수의 옛가락 장단에 어린이들은 줄래줄래 따라다녔다. 각설이 타령을 구성지게 뽑아내는 거지들도 장날은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 주었다.

객사 서쪽에 사창司倉, 서고西庫, 동고東庫가 있어 창고로 가는 이 거리를 창거리라 불렀고 물 맛 좋은 창거리샘이 여기에 있었다. 읍성 안 남서쪽 옥골에는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었다.

읍성 안에는 아사와 객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이 30여 동에 총 300여 칸間이나 되었다. 공해 관청 건물들 사이사이에 일반 백성들의 집이 여기저기 열기설기 섞여 살고 있었다. 성 밖은 농경지마다 자연마을 단위로 촌락을 이루고 있었다.

마을의 이름도 읍성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붙여졌다. 읍성의 서문을 고자문古自門이라 했다. 고자문 밖을 서문 밖이라 하여 ‘서음 밖’이라 불렀다. 서외리는 서문 밖에서 유래되었다. 서문은 서외리 오거리에 있었다. 읍성의 동쪽으로는 진동문鎭東門이라는 동문이 있었다. 동문 밖을 ‘동음 밖’이라 했고 동외리는 이에서 연유되었다. 남문에는 안청루晏淸樓란 문루가 있었다. 문루에는 김수온金守溫의 시가 걸려 있었다. 이 남문 밖을 ‘남음 밖’이라 불렀다. 수남리水南里 남외南外마을이 이에 해당한다. 남문 밖 경사진 곳에는 수문水門이 있어 수문 밖을 ‘수음 밖’이라 불렀다. 성안을 예나 지금이나 성내리라 부른다.

지리산에서 발원한 무량산은 낙남정맥이 지나가면서 솟구쳐 놓은 고성 의진산鎭山이다. 무량산에서 서북 방향으로 흘러내린 물은 영천강을 이루고 남강과 합수한다. 무량산에서 발원한 물이 동으로 흘러 읍의 농토를 적시고 동쪽 바다로 흘러든다. 이 물이 율천栗川이다. 율천을 흔히 밤내라고 불렀다. 율천은 용산천과 이진교(이징구 다리라고 불렀다)에서 합수했다. 용산천은 거류산과 벽방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였다. 이곳부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물을 소소강召所江이라 했다. 소소강이 만나는 바다를 소소포召所浦라 불렀다. 율천리栗川里에는 소소강으로 인해 소소포가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소금을 만들었다.

무량산의 산줄기 한 가닥은 남으로 흘러내려 감치산과 불암산을 이루었다. 이 불암산에서 서쪽으로 무이산과 문수산, 수태산, 좌이산이 뻗었다.

읍성 동쪽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백방산은 읍성 바깥에 있는 남산으로부터 왔으며 그 북쪽의 거류산은 벽방산에서 왔다. 거류산을 유민산流民山이라고도 했다. 이 거류산에서 동쪽 맞은편으로 곡산은 구절산이라고도 하는데 거류산으로부터 왔다.

명산이 있으면 언제나 대찰이 있기 마련이다. 법천사는 무량산 아래에, 문수암은 무이산 자락에, 옥천사는 연화산의 품안에, 안정사는 벽방산의 기슭에 자리를 잡았다.

고성읍성에서 북으로 2리 가량 떨어진 곳에 무기산舞妓山이라는 곳이 있다. 산이라고 하기에 턱없이 낮은 야트막한 동산 위에 둥근 밥그릇을 뒤집어 놓은 큰 무덤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 산을 흔히 똥메산(독뢰산)이라 불렀다.

무기산은 이름 그대로 기생과 관련이 있는 산이다. 고려시대 고성 수령인 고주자사固州刺史가 기생을 데리고 이곳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무기산 아래 무기정 술집에는 월이라는 아리따운 기생이 있었다.

—정해룡 소설 《조선의 잔다르크 월이》에서